

월요광장

독서 모임, 그 등글고 고요한 공간



정 봉 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한 달에 한 번, 달빛 책방에 간다. 친구들과 모여 함께 읽기로 한 책의 밑줄 친 구절들을 서로에게 읽어 준다. 다른 이는 어디에 마음이 닿았는지, 왜 그 문장 앞에서 흔들렸는지, 어떤 단어들과 마주했는지를 듣는다. 뜻하지 않은 섬세한 감각으로 타인의 마음자리에 새겨진 삶의 결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밑줄 그은 부분이 같아서 반가울 때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글귀가 친구들의 이야기와 만나 새롭게 안겨 오기도 한다. 하루치 노동을 끝내고 모이는 밤이라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배부른 시간이다.

“그냥 읽어 오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구절에 밑줄을 쳐 보세요. 모임은 여러분이 밑줄 친 구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여름 셋이서 시작한 책 모임이 어느덧 여덟 명으로 늘었다. 결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었고 느슨하지만 따뜻하게 책으로 연결되었다. 그사이

군에 입대한 친구도, 큰 도시로 일지리를 찾아가는 친구도, 엄마가 된 친구도 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낸다. 우리의 삶과 마음은 늘 상반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때로는 무기력하고 슬픔 앞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난 책과 그 너머의 이야기가 삶의 동력과 위로가 되어 준다. 책을 읽는 능력은 없는데 어떡하나요? 삶이 불안한데 책을 읽어야 하나요? 책이 쓸모가 있나요? 책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 나는 저마다의 독서 모임을 권한다. 독서 모임은 구성원들이 공통된 책을 읽고 만나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상처와 실패를 이야기하며 자기를 깊이 이해하는 공간이고, 타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며,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 보면 안다. 모두들 지나온 힘든 시간들을 위로받고 그럼에도 잘 해 왔음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 모든 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을.

독서 모임이라는 ‘등글고 고요한 공간’(김경영)이 유익한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실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책을 읽을 때, 모임에서 이야

기할 때,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평소와는 다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기 성찰 능력이다. 책을 읽으며 “아, 이게 모두 내 이야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태도, 독서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된다. 자기 내면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기 어렵다. 공감 능력은 그러므로 자기 성찰 역량과 비례한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은 저마다 생의 한 시기를 특별하게 보내는 듯하다. 일과를 처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책을 읽는 행위도 강도 높은 노동이라 신체적 고통이 따르지만 누가 시켜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 삶에 유익하고 배울 만한 것이 있다고 느끼면 참여하고, 공연한 시간 남비로 느껴진다면 오지 않아도 된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통제받는 일에 익숙한 삶에서 자율성을 획득하는 일은 그 자체로 기쁨을 안겨 준다.

또 하나, 모임에서 경험을 털어놓고 나면 그다지 부끄러울 것 없는 일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자아가 보다 견고해질 때까지 비밀 유지는 중요한 조건이다. 누군가 처음으로 가장 아픈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태도를

경험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안전하며 이야기와 함께 고통도 견딜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 독서 모임은 그런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독서 모임은 타인의 경험에서 배우는 공간이다. “나는 불안해서 멈춘 일 앞에서 저 친구는 스스로없이 발을 내딛는구나. 저렇게 별일이 아니구나.” “저 친구가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은 저렇구나. 나랑 다르지만 저 방식이 나아 보이는구나” 하는 것. 타인이 건네는 지혜나 통찰을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놀라게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 누구나의 삶만큼 풍요로운 도서관은 없다.

책의 한 귀퉁이를 집어 두는 것을 뜻하는 ‘도그이어’(dog’s ear’라는 말이 있다. 소설가 김연수는 “도그이어라는 건 개의 귀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건 문자를, 그리고 문자로 표현되는 세계를 사랑한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예의 바른 행동이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때, 나는 그 순간을 그렇게 집어 놓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집어 놓은 삼각형들을 책임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번쯤 이렇게 세상을 한 귀퉁이를 집어 타인의 세계를 끌어안아 보아도 좋겠다. 집어 둔 이야기에 마음 기울여 줄 친구를 찾아 나서는 용기를 낸다면 누군가는 그에 응답할 테니까 말이다. 인생의 벼들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

법조칼럼

검사의 건강관리법



김 지 현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검사 생활 중에 선배 검사들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병가를 내거나 심지어 지병으로 숨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군대에서는 매일 일과 종료 1시간 전부터 ‘전투체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력단련 시간을 갖는다. 달리기를 주로 하고 체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을 하면서 체력을 증진시킨다. 가끔은 축구나 족구 등 경기 종목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군대는 체력이 국력이니, 매일 같이 체력단련을 해도 되겠지만 검찰청에서 매일 같이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 일주일에 1회씩 1시간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검찰본부장에게 제안한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돌한 발언을 한 것 같아 부끄럽지만, 당시에엔 진지했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까지 출근하면서 운동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생활하다가가는 필자도 나중에 병가를 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 미레가 앓음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검찰본부장은 필자의 진심을 알아준지 고민에 대해 끝까지 귀 기울여 주고는 건강관리법에 대해 안내해줬다. 검사는 여러 개의 접시를 돌리는 서커스단원 같이 여러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가족, 건강, 업무 등 어느 한 가지 접시라도 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다. 이어 국가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과 중에 운동을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일과 후이라도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강관리를 해보라고 하면서 내년에 다시 와서 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감찰본부장의 명(?)을 받아 그날 당장 건강관리 계획을 짜보았다. 잠을 줄이거나 틀틈이 시간을 내는 수밖에 없었다. 선배 검사들에게도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는지 물어보았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기, 퇴근 후 30분 정도 테니스 레슨 받기, 걸어서 출퇴근 하기, 청사 근처 헬스클럽 다니기 등등 여러 방법이 있었다. 그 중 손 쉽게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와 평소 하고 싶었던 테니스를

배우기로 했다.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면 하루를 알차게 산 것 같은 기분에 스트레스도 덜 받고, 업무도 활기차게 할 수 있었다.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을 받아 떠나면서 테니스는 그만 두게 되었지만 대신 걸어서 출퇴근 하기와 축구 동호회에 가입해 축구를 하면서 건강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초임 검사 때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초임 때 운동을 해결해준 감찰본부장과 여러 선배 검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고 한다. 비단 검사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자신이 하는 업무는 물론 가족들을 챙기느라 건강 챙길 시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오늘도 결재를 받기 위해 5층까지 계단으로 걸어가야겠다.

기 고

광주 100년의 역사, 박선홍 선생님을 기억하며



이 유 진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

했지만 결국 매립되고 말았어. 특히 경양방죽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이름난 호수 다섯 곳 가운데 하나로 거명될 정도로 유명했지.” 이에 대한 상실감과 회한이 컸기에 사라져간 풍경과 풍속, 상부상조의 전통을 기록으로나마 복원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느껴졌다 하신다.

지난 2012년 광주문화재단은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선생님은 1994년 출간된 자신의 저서 ‘광주1백년’ 총3권, 1998년 출간된 ‘무등산’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재단에 기증했다. 이후 재단은 기존 도서에 빠져 있는 이야기를 새로 담아 개정 증보판으로 ‘무등산’, ‘광주 1백년 1·2·3’을 발간해 새롭게 독자들을 만나게 했다.

2015년 필자가 실무자로 참여해 ‘광주1백년 3’을 만들 당시 못다 한 광주1백년 이야기라 하여 새로운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하나하나의 소중함과 애정 때문에 시간 모아놓은 광주의 자료, 기억을 되살려 문장을 새로이 만드셨고 사실을 근거으로 한 광주1백년 연표를 작성하다보니 글의 순서나 사실 여부, 내용에 대한 편집회의를 여러 차례 하였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조광철 학예연구사, 사진가 신장용, 재단 김지연 팀장, 필자와 함께 수정과 보완·윤독을 정성스

레 겨우 함께하셨다. 회의를 끝내면 재단 근처 ‘정애네’에 들러 저녁식사를 하곤 했다. 별다른 안주 없이, 차려진 반찬과 함께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을 참 좋아하셨다.

“광주1백년 3’ 편집이 마무리 되어갈 무렵 ‘저자의 말’ 원고를 건네 주셨다. ‘이번에 ‘광주1백년’을 마무리하면서 못다 한 이야기도 몇 편 수록하였다.(중략) 흠이 없고 멸실될 뻔한 자료들이 모여 문장이 되고 책으로 묶여지게 되어 다행스럽다. 이제 못다 이룬 대목은 다음 세대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부디 광주문화재단이 우리 광주 향토정신의 도도한 정통성과 문화자산의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광주학’을 여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건강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해 12월 출판기념회까지 무사히 마쳤다.

해가 바뀌어 부쩍 쇠약해진 선생님을 걱정할 가족들 때문에 한동안 집에서만 지내는 게 답답하셨던지, 작년 그 날도 편집회의 때마다 걸어오던 그 걸을 걸어 재단을 찾아오셨던 것 같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오래 앉아 있으면 일에 방해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충장로까지 걸어가겠다”며 한소리 들 어가라는 걸 따라나섰다. 건물 밖으로 나

오자 재단 바로 뒤 광주공원 나무에 대해 그냥 갈 수 없다며 말씀하셨다. “광주공원 원은 일본, 몽고, 만주, 대만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종류의 나무를 가져와 심었지. 그런데 해방 후 무등산도 그렇고 나무를 빨강으로 가져다 쓰니까 숲이 엉망이 되는 거야. 나무를 보존하고 식수를 다시는 하는 일을 했지.” 마치 그날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듯 생생했다.

차도를 함께 건너 광주교에 이르렀다. 그런데 계속 따라 나서는 게 마음 쓰이셨는지 “이러면 다음엔 못 오지” 하시니 더 이상 갈 수 없어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 선생님은 “미수(米壽)에 시작한 작업이어서 걱정스러웠지만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그 시간들을 즐겁게 추억하셨다. 그후 설날 집으로 명절인사 드렸던 것이 선생님과과의 마지막이었다.

지난 9일 선생님의 별세 소식을 듣고 빈소를 찾았다. ‘뜻을 눈에 보이는 데에 두지 않고 영원한 데에 둔다’는 말 지재불후(志在不朽), 선생님은 그런 일만 골라 하셨던 것 같다. ‘선생님! 생전의 말씀처럼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있어 지켜내야 할 광주의 모습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살겠습니다. 광주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광주사랑 고맙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생님.’

社 說

난개발 주범 인구 부풀리기 더 이상 안 된다

지자체들이 장래의 목표 인구를 과도하게 설정해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이를 토대로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시설을 추진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의 목표 인구가 통계청의 추계 인구를 5% 이상 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상 목표 인구는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승인의 기준이 되면서 지자체들이 이를 부풀려 마구잡이 개발을 조려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인구 부풀리기 실태는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지자체들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인구 총계가 6249만 명에 달해 통계청 추계 인구 5143만 명을 1100만 명 이상 초과한 것이다.

광주·전남도 마찬가지로 통계청 추계 인구에 따르면 2030년 광주의 인구는 148만 명, 전남은 179만 명이다. 광주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 인구를 170만 명으로 이전보다 낮춰 설

정했으나 지침에 의해 이마저도 160만 명 이하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전남도는 2030년 목표 인구를 200만 명으로 설정해 계획이었지만 인구 감소가 가팔라지면서 무려 17개 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돼 수정이 필요하다.

인구 ‘뺑 튀기기’는 현재 남비로 이어진다. 광주 제2순환도로는 당초 2011년 인구를 무려 230만 명으로 추정해 통행량을 두 배 이상 부풀려 산정함으로써 민자 사업자에게 매년 수백 억 원의 재정보조금을 몰아 줬다.

정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지자체의 도시 발전 전략 수립에도 대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신규 시설 공급보다는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관리 중심으로 바뀌어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인구를 앞세우기보다 개발 잠재력이나 지역 낙후도 등 새로운 척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폐지 줍는 노인에게 생수 한 병의 정성이라도

일상에서 가끔 마주치지만 때면 맘이 찢히고 불편한 심경을 가누기 어려운 풍경 하나가 있다. 폐지 줍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모습이다. 폐지를 실은 손수레나 접이식 핸드카트를 힘겹게 끄는 모습은 우리에게 미안함과 왠지 모를 슬픔까지 안겨 준다.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폐지를 줍기 위해 거리를 오가는 노인들이 많지만 이들에게 미치는 도움의 손길은 멀기만 하다.

광주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노인들은 동구 131명, 서구 101명, 남구 186명, 북구 214명, 광산구 116명 등 모두 748명으로 집계됐다. 고물상을 찾아오는 노인들을 전수 조사했다고 하니 거의 정확한 숫자일 게다. 이들 노인들은 대부분 기초연금 20만 원안으로 생계를 이어 가기가 어려워 거리로 나온 이들이다. 이들이 폐지를 주워 얻는 수입은 건강 상태나 날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이 버는 사람이 하루 3000원 정도이며, 대다수가 1000~

2000원에 그친다고 한다. 최근 며칠 새 내일 최고 기온이 2~3도기량 떨어지자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이 부쩍 눈에 띄고 있다.

다행히 광주시가 이달 초부터 노인들에게 쿨스카프와 야광 조끼를 지급했지만 노인들로부터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쿨스카프는 물에 적시거나 냉동실에 얼려 목에 두르는 것인데, 노인들로서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야간에 눈에 잘 띠도록 하는 야광 조끼도 덥고 불편해 번거롭기는 마찬가지다.

하루 수입이 2000원 정도인 노인들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도 몇백 원 하는 물 한 병 사지 못한다고 한다. 시와 구청에서 여름 동안만이라도 동네 주민센터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생수와 간식을 이어 가기가 어려워 줄 수는 없는 것일까. 쉽게 만나기 어려운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어서 번거로울 수도 있겠으나 이런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는 큰 보탬이 될 것이다.

無 等 鼓

박정희 정권이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을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 바로 다음날 교수형에 처해 버린 1975년 4월 9일. 사람들은 시퍼렇게 질린 채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바로 이를 뒤인 11일, 학생들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서울대 68학번 북학생인 김상진은 이날 서울농대에서 3차 집회를 시작하며 물러난 선우배와 친구들 앞에서 양심선언문을 읽어 내려갔다.

“우리를 대변한 동지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신음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생명을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다.” 앞기를 마친 김상진은 준비해 둔 과도를 품에서 꺼냈다. 말릴 틈도 없이 비명만 터져 나오는 사이, 김상진은 과도를 아랫배에 찔러 넣고 위로 그어 올렸다. 김상진은 그렇게 민주주의라는 나무에 25년 짧은 생을 바쳤다.

이후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1970~80년대 민주화 시위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이 말을 애용했다. 5·18광주민주항쟁을 뒤 달도 채 남겨

두지 않은 1980년 3월 26일. DJ는 YWCA 강연회에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은 슬로건이 아니라 진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연설의 원천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1787년 쓴 편지다. “자유(Liberty)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로 반드시 새로워져야(we refreshed) 한다. 그 피는 자유라는 나무의 거름(manure)이다”라는 내용이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는 김상진이나 DJ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터다.

얼마 전 극장에서 ‘택시운전사’를 관람했다. 여기저기서 울음 삼키는 소리를 들으며, ‘민주주의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되새겼다. 우리를 대신해 차가운 아스팔트에 뜨거운 피를 흘린 민주화 영령과 가족에게 다시 한 번 감사했다. 부은 눈으로 영화관을 나서는 관람객들의 으스스한 어깨에선 ‘민주성지 광주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b>광고문의 062-227-9600</b>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국인내 222-4918)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220-0664 (FAX 227-9500) (FAX 02-773-9331)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